

## 사료가격 또 인상되면 너무 타격커

**문 :** 최근의 전북지방의 양계인들의 근황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또 월간양계 9월호에도 게재 되었듯이 일기불순으로 미국의 작황이 당초 예상 수확량보다 감소했고 미국내에는 국내 곡물가격의 상승을 막기위해 수출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현재 옥수수 가격이 180불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사료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선 또 한번의 사료가격인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작년도에 무려 80%의 사료가격이 '인상되었는데 또 한차례의 사료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보는가?

**박인수(동양부화장대표) :** 현재 난가가 좋은 가격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 전북지방 채란업자들은 그런대로 잘해 나가고 있다.

일부에선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사육수수를 좀더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는 업자들도 있다. 그러나 종계업자들은 예년의 쓰라린 경험이 있어 종계의 다량확보가 위험하다고들 생각하고 있다. 부로일러

는 여름철 성수기에 육계값이 상당히 좋았으나 이제 그 가격이 서서히 떨어져가고 있으며 350원이하로 계속 하락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업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소고기가격 특히 돈육 가격이 오르면 자연 육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면에서 돈육과 우육가격의 상한제를 철폐하면 육계업자들에게는 유리하게 된다.

이외에도 업자들 스스로가 피해를 입는 것은 업자들간에 단합이 되질 않아 중간상에 농락을 당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것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료가격 인상은 업자들에게 흉망의 근본적인 문제에 속한다. 그나마 유지하여 운영세양제업자들에게 크나큰 타격이 될것이다. 현재에도 외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다시 가격이 현저하게 인상된다면 전업하는 경우가 속출될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하루빨리 불경기를 벗어나야겠다. ....<김종성 기자>

## 대만, 대일 돈육수출 규제

### 우리나라로선 더 관망해 봐야

**문 :** 무역공사 대구사무소 소식에 의하면 지난 9월 1일 대만 육돈의 대일수출을 중지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대만 육돈의 대일수출금지지는 계속적인 사료가의 양등등 생산비

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국내의 돈육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보여진다. 또 이러한 돈육수출의 금지가 일본에 돈육을 수출하던 한국과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

치게 될지 말해 주었으면 한다.

윤도진(제일종축농장 사장) : 대만의 대일 돈육수출은 사실 과거 대일수출의 일부를 담당했던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 같다. 요즘 같이 돈육이 천대를 받은 적도 없는 것 같다. 작년도 대일수출을 목적으로 양돈 붐이 일어났는데 돈육수출의 길이 막히자 양돈가의 타격은 너무나 컸던 것 같다. kg 당 220원까지 판매되었다. 요는 대만의 대일수출 규제로 우리나라가 돈육의 대일수출을 할 희망이 생기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양돈보유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문제이고 또 대만이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수출을 중지할 것인가가 문제다.

일전에 양돈협회 이사회에 참석해서 들은 바로는 농수산부는 현 돼지보유 두수가 223만두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과연 확실한 숫자가 될는지 의심스럽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추정하기에는 120~150만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73년도 농수산부 통계로는 150만두였는데 74년에 들어 이렇게 많은 수가 증가했는지 의문시된다. 이러한 통계의 추정은 어느정도 근사치가 나와야 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로 볼때 국내 수요가 그 동안에 그렇게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농수산부의 집계는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72년도의 예를 들어보자. 72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12만두의 돼지를 수출했는데 농수산부가 그때 추정한 보유수는 130만두

였다. 그러나 12만두 수출로 국내자원이 고갈되었다. 이러한 농수산부 통계는 역(逆)으로 생각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역공사 타이베이 사무소(내외경제경제) 발표로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출할 돼지가 있는지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다. 73년 일본의 돈육수입은 미국33%, 대만 25%, 캐나다, 한국 3%를 수입했다. 74년도 4, 5월에 와서 일본이 대만으로부터 수입 비중을 미국보다 더 크게 의존한 것으로 보아 일본돈육수입에 차질을 빚게될 것 같다.

이번 대만의 대일돈육수출 금지조치는 자국내의 돈육가격의 폭등을 대비하여 자국의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취해진 것 같다. 현재 대만의 대일돈육수출 규제가 우리나라에 직접 미칠 영향은 앞으로 좀더 관망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일본에서 돈육에 대한 수입관세와 일본국내의 양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액관세 부과등을 고려해 볼때 국내수출가격의 적정선을 받을 수 있을지 좀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의 상태로서 앞으로 수출이 재개되리라는 확신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대만이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대일돈육수출을 중지한다면 다소 희망을 걸어볼 만하나 현재 한일관계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어 그것마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 ....<김수문 기자>

이번호부터 새로 일문 일답 란을 마련했습니다.

양계에 관련된 최근 문제점들과 전망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실어 각계의 일부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월간양계는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 — 문 — 일 — 답